**제 50회 신입생 워크샵 의소분 팀 인수인계서**

59기 박지영 김하영 안정은

**1. 대본 나오기 전**

우선 명륜, 율전 동방에 어떤 소품, 의상 및 분장도구들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캐스트 연습 자주 보러 가세요! 의소분 팀은 캐스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감도 잡고, 공연 준비를 해 나가면서 연출진들, 캐스트들과 컨택 할 일이 매우 많을 것이기에 자주자주 얼굴 익혀 놓으시면 좋습니다. 때문에 의소분-캐스트 단톡 만들어 놓는게 편합니다. 그리고 본격적 공연 준비 전에 캐스트들 신체 사이즈 (상의, 하의, 신발 사이즈, 키, 몸무게, 기타 특이사항 등) 리스트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2. 대본 나온 후 본격적 공연 준비**

**-의상**

대본을 쭉 읽고나서 인물들 각각의 특징을 살려 어떻게 의상을 정할지 생각을 합니다. 이때 어떤 느낌인지 사진으로 찾아 놓고 연출팀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이야기 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상은 의소분 팀 생각보다는 연출팀이 생각하는 그림이 더 중요하기에 꼭 같이 회의하세요.

회의에서 의상 컨셉이 컨펌 났다면 엑셀로 의상 체크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때 모든 의상을 상의, 하의, 신발, 악세서리 등등으로 한 벌 씩 나누어서 사진을 찾아 리스트에 삽입하는 것이 구할 때 편합니다. 리스트에는 ((역할, 의상사진, 사진으로 부족한 의상설명, 빌린 사람, 보관된 장소, 컨펌 여부 등))이 필요하고 이것을 의소분-캐스트 톡에 전달하여 캐스트들 본인이 입을 의상이 뭔 지 알려줍니다. 이때 연습이나 공연 중 의상 훼손 및 이염은 캐스트 책임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본격적으로 구하기 시작하면, 우선 캐스트들 본인 의상 중 가져올 수 있는 것이나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캐스트 선에서 구하도록 합니다. 현대극의 경우는 특히 캐스트들 본인 옷을 입거나 본인이 의상을 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의소분 팀에서 나머지 의상 구해보고, 구해진 거 수렴될 때마다 체크 리스트 업데이트 합니다. 의소분, 캐스트 선에서 구하지 못한 의상들은 공연진에서, 거기서도 못 구한 것들은 전체 활동자에서,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구합니다. 빌려야 하는 의상, 구매해야 하는 의상, 만들어야 하는 의상도 해결합니다. 그리고 구해진 의상은 바로바로 가져와서 입혀보고 컨펌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한번에 컨펌 거의 안 나기에 구하는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촉박해요ㅜㅜ

보관 문제는 의상이 컨펌난 후부터 시작인데, 동방에 보관해도 되지만 손상우려가 있으므로 의소분 팀이 따로 보관하거나 캐스트 본인이 따로 보관합니다.

**-소품**

가장 처음으로 할 것은 대본 나오자 마자 꼼꼼히 읽으면서 필요한 소품리스트를 작성하여 연출팀에게 컨펌 받는 것입니다. 소품은 소도구만 준비하면 되고, 대도구는 무대팀이 준비합니다. 캐스트 각각의 소품박스가 필요하므로 적당한 크기의 소품박스를 준비하라고 전달합니다.

그후 엑셀로 소품 체크 리스트를 만듭니다. 리스트에는 ((소품, 소품사진(필요한 것만), 사진으로 부족한 소품설명, 빌린 사람이나 구한 곳, 보관된 장소, 컨펌 여부 등))이 필요하고, 이 리스트도 만들어 지는 즉시 의소분-캐스트 톡에 전달합니다.

구하기 시작하면, 소품도 마찬가지로 의소분+캐스트->공연진->전체 활동자->주변인들 순으로 구해보고, 따로 빌려야 하는, 구매해야 하는, 만들어야 하는 소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결합니다. 명륜, 율전 동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품들도 꽤 있으니 각 동방 제반조사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구해지는 대로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하고, 바로바로 컨펌 받아야 합니다. 소품은 구해져야 캐스트들이 그걸로 연습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구해지면 좋습니다.

소품에서 중요한 것은 은박지처럼 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리는 것이 조명을 반사하여 관객들에게 눈부시게 비춰진다는 점입니다. 반짝이는 부분에 무광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관은 소품을 역할별로 나누어서 그 역할의 소품 박스에 넣어두고, 없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분장**

대본을 읽으면서 특징에 맞게 분장 및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노인과 같이 나이를 아예 바꾸거나 특징이 확실한 캐릭터들은 더더욱 신경을 씁니다. 이때도 연출팀과의 회의가 필수적입니다.

분장도구들은 명륜, 율전 동방에 있는 화장품들을 사용하거나 의소분 팀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캐스트나 공연진의 화장품을 빌리거나 받아서 사용합니다. 파운데이션은 캐스트들 피부 톤에 딱 맞거나 오히려 반 톤 어두운 것을 사용해야 조명을 받았을 때 들뜨지 않습니다. 섀딩과 하이라이터를 진하게 주고, 주름 같은 것은 아이브로우로 진하게 표현해야 조명 밑에서도 보입니다. 주름 그릴 때 실제 주름지도록 표정 만들어서 그거 따라 그리면 더욱 진짜 같아요. 캐릭터가 진한 입술색이 필요한 것이 아니면 남자이건 여자이건 입술색은 가볍고 연하게 주었습니다. 마스카라 기본적으로는 안 해도 돼요! 흰머리는 컬러 헤어스프레이 흰색(은색 말고) 사면 됩니다.

워크샵은 공연 5일 쯤 전에 캐스트들을 다 모아 놓고 전체를 분장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리는 지도 잡고, 연출팀과 함께 보면서 컨펌 받고, 공연 당일 날 버벅거리지 않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해지지 않거나 구하기 어려운 의상, 소품일때는 다른 대안 많이 많이 생각하세요!! 거기서 더 좋은 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림과 실제 연습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림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캐스트 연습을 자주 보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상 빌릴 때 “연극 의상”, “연극 의상 대여” 쳐보면 많이 나와요!

\*\*의상이나 소품 살 것들 미리 리스트 만들어서 기획팀에게도 꼭 알려 주시 길 바랍니다. 다 기획비니까요ㅜㅜ

**3. 공연 당일**

필요한 소품을 모두 무대 뒤에 옮겨 놓고, 무대 뒤 공간이 얼만큼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품들이 무대로 나가는 순서 기억해서 뒤깎이 및 리허설 때 맞춰봅니다. 오퍼콜 때 와서 캐스트들 의상 갈아 입히고 바로 분장해줍니다. 오퍼는 꼭 시간 확인 미리 하셔서 오퍼 시간에 꼭 다 계셔야 합니다. 분장할 때 손이 모자라요! 분장은 리허설보다 전에 하고, 뒤깎이 및 리허설 하면서 더 진하게 혹은 더 연하게 갈 부분 잡아서 수정해야 합니다. 보통 공연 한시간 전부터 수정분장 시간인데, 이때는 캐스트들 땀 닦아주고 말그대로 수정만 하면 됩니다.

의소분 팀은 무대 뒤에서 계속 상주하며 캐스트들 환복 하는 것 도와주고, 수정분장 해주고, 소품 나가야하는 것들 캐스트들이 챙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환복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대본에서 어느 부분인지 체크 해놓고 캐스트가 무대 뒤로 왔을 때 바로 환복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연중 수정분장은 사실상 땀 닦아주는 것 정도만 합니다. 심하게 지워진 거만 얼른 수정해줍니다. 그리고 인물별로 소품 들어가야하는 위치 가깝게 잡아서 정리 해놓고, 캐스트가 무대 뒤로 와서 소품을 가져갈 때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4. 공연 후**

소품 박스에 인물별로 있었던 소품들 다 정리해서 넣어서 동방에 옮겨 놓고, 의상도 다 회수하여 동방에 정리해 놓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합니다. 캐스트, 의소분, 공연진, 전체 활동자, 주변인들에게 빌렸던 의상 및 소품들을 체크리스트 확인해가며, 빌린 사람 별로 각각 정리하여 돌려줍니다. 못 돌려받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의상이나 소품이 망가졌을 때는 그 역할의 캐스트가 수선 및 세탁하여 줘야합니다.